
**2018 KIHASA-EWC 국제컨퍼런스 참석
및 국제비교 공동연구(3차년도)
종합검토 및 논의**

2018. 11.

1 **출장 배경 및 목적**

☐ **출장 목적**

- 2018 KIHASA-EWC 국제컨퍼런스 참석 및 국제비교연구 공동연구(3차년도) 종합 검토 및 논의

☐ **과제명**

- 국제심포지움

☐ **출장기간**

- 2018.11.7.(수)~2018.11.11.(일)

☐ **출장지역**

- East-West center, Honolulu, Hawaii, USA

☐ **출장자**

- 김종훈 실장, 이소영 센터장, 변수정 연구위원, 최인선 연구원

☐ **일정요약**

출장일	국가	방문기관	면담자	활동사항
18.11.7	-	-	-	출국(인천공항)
18.11.7 *현지기준	미국	EWC	이상협 교수 외	2018 KIHASA-EWC 국제컨퍼런스 사전 미팅
18.11.8 *현지기준	미국	EWC	이상협 교수 외	2018 KIHASA-EWC 국제컨퍼런스
18.11.9 *현지기준	미국	EWC	이상협 교수 외	2018 KIHASA-EWC 국제컨퍼런스 KIHASA-EWC 워크숍
18.11.10~11	-	-	-	귀국

가. 2018 KIHAS-EWC 국제컨퍼런스 사전 미팅 (18.11.7)

□ 국제컨퍼런스 진행사항 공유 및 발표자 소개

- 국제컨퍼런스의 목적, 1,2차년도 공동연구와의 관계, 컨퍼런스의 전반적인 사항 공유
- 저출산, 노동시장, 가족을 주제로 발표될 10개의 주제발표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새로운 연구진 소개
- 환영 만찬 후 향후 일정에 관한 간략한 소개

나. 2018 KIHAS-EWC 국제컨퍼런스 (18.11.8~9)

SESSION I : Childcare, Institutions, and Fertility

1. Paternity Leave and Fertility Intentions in Europe

-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성별불평등 감소, 어린 아동이 있는 가정의 남편의 참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출산율 감소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
- 아빠휴가는 출산율에 거의 영향이 없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오직 독일에서만 아빠의 달을 포함한 출산율 높이기 위한 2007년 정책을 실행함.
- 남편의 출산의도(3년 내에 출산할 의향)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볼 예정임. 특별한 가족정책과 연결지어서 출산 결과가 어떻게 작동하는 지 다국적으로 비교함. 아이가 있는 남자: 스페

인이 부정적인 효과가 일어남. 아이가 없는 남자: 독일은 긍정적, 스페인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아이가 있으면,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아이가 없는 경우 스페인과 노르웨이에서만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여성과 남성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남.

2. Population Heterogeneity in the Uptake and Effects of (in)formal Child care in Belgium

-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자녀양육지원이 가능한 경우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 가정하여 분석을 실시함.
- 엄마의 교육수준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라 아이를 맡기는 유형이 달라짐.
-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이 아이를 돌보지 않거나 비공식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은 공식적인 아동보육을 이용하는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벨기에에서도 비공식의 요소 중 할(아버지)머니의 도움 정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여전히 아이의 양육방법에 영향을 미침.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공식+비공식. 공식의 아동의 보육방법이 달라짐.
-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노동시장에 많이 들어가게 되고, 1명의 자녀 정도면 양육방법을 유지하지만 2명의 자녀가 되는 경우 양육방법을 확대.

3. Family Policies and Fertility in Changing Economic Times: Spain 2005-2015

- 엄마의 역할과 노동자의 역할에 있어, 자녀양육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일가정양립이 강화되는지. 가정 내에서 성평등이 유지된다면 자녀양육의 기회비용이 얼마인지 살펴봄.
- 자녀양육지원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자녀양육의 지원효과는 교육수준이 더 높은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
- 세부적인 분석에서 출산에 미치는 자녀양육의 유용성 효과를 살펴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경제적인 환경 통제하여 살펴봄.
- 자녀양육의 유용성 증가는 첫째아 출산후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의 부정적 효과를 줄임. (그러나 둘째 출산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았음)자녀양육의 유용성은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에게 더 많은 효과를 나타냄.

SESSION II: Economic Uncertainty

4. The role of personality on childbearing decisions. Gender differences in the employment-fertility nexus

- 남성과 여성이 부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특성을 살펴봄. 만약 이런 개인적 특성이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으로부터 큰영향을 받은 출산의 기회는 크게 박탈당할 수 있음.
- 독일 사회경제패널(German Socio Economic Panel Study)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건별 종단 접근방식을 적용하여 분석

함. 외향적 영향의 사람이 안정적인 고용상태와 생활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여성들은 넓은 수준의 동의와 섬세함이 부모전환에 영향을 미침.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남녀 모두에게 부모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몇몇의 성격특성이 고용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주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복지정책은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쉽다는 근거를 마련함.

5. Does Low Fertility Matter for Korea's Economy?

- 인구변화가 한국의 경제성장과 재정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한국의 세대간 이동은 핵가족의 발전, 경제성장의 지연, 그리고 가족의 이동의 감소로 인해 복지 지출에 더욱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됨.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복지 지출이 국가 이전 계정을 통해 각 연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
- 인구 노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시나리오를 분석하였을 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한국사회는 사회정책의 변화가 좀 더 빨리 이루어져야 할 수도 있음.

SESSION III: Women's Employment and Fertility

6. The Impact of Women's Employment Status on Fertility Behaviour

- 구직 여성이 유럽 내 무직 여성보다 출산할 가능성이 더 높음: 출산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의 특성으로는 고학력 여성이거나, 자녀양육지원이 높은 국가의 여성, 비정규 및 서구/대

룩 국가, 2자녀 출산을 선호하는 경향

- 높은 모성 고용률과 높은 자녀양육지원이 공존하고 있는 경우, 여성근로자의 2자녀 출산확률이 높은 것은 일부 유럽 국가에서 TFR이 다른 국가보다 높다는 점을 상당히 설명할 수 있음
- 최근 일부 출산력이 높은 국가(프랑스, 스웨덴)의 출산 정체 감소는 2008년 위기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고용 불안정성 증가 때문일 수 있음.

7. Very Low Fertility an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Korea and Japa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 조사 결과 한국여성은 2자녀의 출산과 파트타임 형태의 근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여성은 2명보다 적은 아이와 전일제형태의 근로를 하거나 근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노동시장은 매우 긴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정기적으로 여성이 주로 시간제 일자리에 있음.
- 만혼과 비혼의 증가: 주거부담으로 인한 결혼비용의 부담. 성 역할에 따른 결혼패러다임에 대한 부담.
- 자녀양육: 가족친화적인 직장프로그램이 필요함. 일가정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직장문화
- 고령사회 진입에 있어 재정적인 문제에 정부는 봉착했으며 가족의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가 증대되고 있음.

SESSION IV: Work-Family Balance among Female Workers in Korea

8. Introduction of the Study and Survey

- 일가정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여성임금근로자를 조사함.
이를 위해 설문지를 구성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함.
- 전수조사인 '2014년 전국사업체 조사'와 표본조사인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의 여성 임금근로자의 지역별, 산업별 모집단 분포 비교
- 전수조사인 '2014년 전국사업체 조사'의 모집단 분포에 따른 보정 가중치 산정
- 만 15~49세 기혼여성 임금근로자 최종 모집단 현황 추정
- 지역별, 산업별 모집단 비례 배분
- '2014년 전국사업체 조사'의 여성 임금근로자 종사자 규모별 분포 비율에 따른 모집단 비례 배분
-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의 기혼여성 임금근로자 연령별 분포 비율에 따른 모집단 비례 배분
- 조사 대상 사업체 선정
- 적격 대상자 선정
- '여성 근로자 일·가정양립 실태조사'의 표본으로 6,000명을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제 완료 표본 수는 6,600명임

9. Experiences and Needs of Work-Family Balance Policies

- 한국의 일가정양립 정책의 경험과 수요를 살펴봄
- 정부의 탄력적 근로시간정책은 주로 공적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정책을 공공과 사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일-가정양립정책의 운영에 있어서 중소기업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육아휴직수당의 희망 급여액은 현재 받고 있는 금액과 비슷한 형태로 나타남. 이는 수당금액을 높이는 것보다는 수당 수령자를 좀 더 확대하는게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냄
- 정책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이용비율을 줄어 들고 있다. 경직된 조직 문화가 직장 내에 만연하여 정부는 조직문화는 바꾸려는 노력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음.

10. Work-Family Balance and Marriage Satisfaction

- 일가정양립의 사각지대인 비정규직 여성의 일가정양립현황을 살펴보고 그들의 삶의 질을 분석함.
- 정규직 여성의 일가정 양립갈등은 결혼만족도와 강한 부적 관계를 가짐. 고용상태와 관계없이 정규직여성과 비정규직여성 모두에게 결혼만족도와 시간부족은 강한 부적관계를 가짐. 정규직 여성에게만 직장문화가 긍정적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규직 여성에게만 일가정양립 갈등과 직장문화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반면, 비정규직은 영향이 크게 없음. 정규직 여성의 삶은 직장과 가정이 밀접하게 상호적으로 영향을 준다면, 비정규직 여성은 일과 가정이 분리된 영역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해석됨.
- 비정규직 여성이 정규직 여성보다 전반적으로 결혼만족도가 낮게 측정되고 있음. 결혼만족도는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삶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임. 그만큼 삶의 질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음.

Rounding Table

- 개발도상국들에서 출산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음. 이것을 야기시킨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책은 출산율 증가에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나?
- 남성이 육아에 참여하는데 장애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남성의 가사노동활동과 자녀양육을 높이기 위해 정책 혹은 측정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남성의 참여는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가?
- 한국은 가족정책을 주로 운영하는 유럽사회와 다름. 가족정책과 노동시장을 위한 한국정부의 계획에 대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 한국에서 자녀양육비에 대한 부담은 출산율을 낮추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임. 그러나 한국의 공보육과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어, 실제로 한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다. 2018 KIHAS-EWC Workshop (18.11.9)

- 2018 KIHASA-EWC 국제컨퍼런스와 보고서 완료에 따른 마무리 작업에 대해 논의함. 더불어 향후 EWC와의 협의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모색함.
- 이번 EWC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에디터들의 검토 후 페이퍼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스프링거출판사로 인쇄할 예정임 해외 사례와 더불어 한국의 사례를 본원에서 함께 작성하여 주기를 바랍. (예를 들어, 이번 발표와

같이 저출산, 노동시장과 관련된 일반보고서의 번역한 내용을 삽입하는 것도 긍정적임)

- 다음해의 과제는 고령화와 관련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는 연구를 제안하고자 함. 혹은 보사연의 연구목적을 제시하면 방향성을 함께 검토하겠음.
- 추후 진행사항은 본 연구책임자의 한국방문으로 관련 연구책임자들과 함께 내년 과제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Pau Baizán ICREA Research Professor Universitat Pompeu Fabra Department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25 Ramon Trias Fargas E-08005 Barcelona, SPAIN Email: pau.baizan@upf.edu
Angela Greulich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é Paris 1 Panthéon Sorbonne 106-112 boulevard de l'Hôpital 75647 Paris Cedex 13, FRANCE Email: angela.greulich@univ-paris1.fr
Soo-Jung Byoun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370 Sicheong-daero Sejong City 339-007, S. KOREA Email: byoun1@kihasa.re.kr
Jong-HoonKim Director Department of Population Policy Research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370 Sicheong-daero Sejong City 339-007, S. KOREA Email: jkim@kihasa.re.kr
MinjaChoe Adjunct Senior Fellow East-West Center 1601 East-West Road Honolulu, HI 96848, USA Email: mchoe@hawaii.edu
Sang-Hyop Lee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Non-resident Senior Fellow, EWC 1 East-West Road Honolulu, HI 96822, USA Email: leesang@hawaii.edu
So-Young Lee Head Center for Research on Low Fertilit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370 Sicheong-daero Sejong City 339-007, S. KOREA Email: sylanne@kihasa.re.kr
Insun Choi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370 Sicheong-daero Sejong City 339-007, S. KOREA Email: waiting23c@kihasa.re.kr
Lester Lushe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2424 Maile Way, Saunders Hall Honolulu, Hawaii 96822, USA Email: rlusher@hawaii.edu
Jong-Seo Park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370 Sicheong-daero Sejong City 339-007, S. KOREA Email: parkjs@kihasa.re.kr
Teresa Molina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2424 Maile Way, Saunders Hall Honolulu, Hawaii 96822, USA Email: tmolina@hawaii.edu
Sung Jae Park Senior Fellow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7 Gyohak-ro, Jincheon-Gun Chungcheongbuk-do, 22873, S. KOREA (Visiting Scholar at the East-West Center) Email: parks@eastwescenter.org
Karel Neels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eitAntwerpen S.M.381 2000 Antwerpen, BELGIUM Email: karel.neels@uantwerpen.be
Christian Schmitt Senior Research Associate Rostock University and DIW Berlin The German Socio-Economic Panel (SOEP) Mohrenstr. 58 10117 Berlin, GERMANY Email: cschmitt@diw.de
Wei Zhang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2424 Maile Way, Saunders Hall Honolulu, Hawai'i 96822, USA Email: weizhang@hawaii.edu

Berkay Özca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Policy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Houghton Street

London, WC2A 2AE, UK

Email: B.ozcan@lse.ac.uk